

일단 진화 했지만... 다시 불붙은 광주 군공항 이전 논란

이낙연 지사 "민간공항과 세트로 전남으로 가져와야" 발언 파문

광주시·광산구 환영 입장, 도의회 등 반발 커지자 서둘러 사과

새해 벽두부터 광주 군공항 논란이 재연될 조짐이다. 이낙연 전남지사는 최근 자신의 군공항 관련 발언에 대해 도의원들이 반발하자 사과하면서 한 발 물러섰다. 하지만 군공항 이전 문제가 광주·전남의 민감한 현안만큼 언제 다시 불거질 지 모를 '불씨'인 것은 확실하다.

이 지사는 14일 광주 군공항 이전 논란과 관련한 방송대담에서 한 발언에 대해 사과하고 "군공항과 무안공항을 합칠 수 없다"며 '무안공항 이전설'에 대해 일축했다. 광주공항 국내선의 무안공항 이전은 시급하지만 군공항 이전 문제는 주민투표로 결정해야 할 사안으로서 광역자치단체장이 관여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지사는 이날 오전 위광환 전남도 건설방재국장을 통해 광주 군공항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광주 군공항 문제와 관련한 방송 대담으로 일부 불필요한 오해가 생겨 진의를 밝힌다"고 전제한 뒤 "광주공항을 무안공항으로 통합하는 일은 시급하며 오는 3월 서울~광주 간 KTX 개통으로 단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광주 군공항을 무안공항으로 합칠 수는 없고 민간공항과 군공항을 함께 두는 것도 옳지 않다는 게 (자신의) 소신"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한 방송사 대담에서 "군공항과 민간공항을 한세트로"라고 표현해 논란을 야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하지 않게 표현했다"며 "일부 표현의 선택에서 충분히 사려깊지 못해 오해를 낳은 점을 송

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다만 그는 "광주가 군공항만 전남으로 보내겠다고 말해서는 안 되는 것처럼, 전남도 민간공항만 가져오겠다고 고집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군공항 이전과 관련된 이 지사의 발언에 전남지역 일부 정치권이 이전 절차를 감안하지 않고 지나치게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군공항은 국방부가 이전 대상지와 지역 및 주민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고 주민과 지자체가 논의해 결정하며, 따라서 주민의 의사를 거스를 수 없기 때문이다.

전남도는 항공 물류단지과 항공기 정비장, 인천국제공항의 대체 공항기능 등 무안공항 활성화를 이유로 군공항 이전에 반대해 왔다. 하지만 광주시와 광산구가 이 지사의 '한세트' 발언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히고 정영덕 전남도의회 행정환경위원회 위원장이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군공항의 전남 이전을 반대하고 나서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정 위원장은 "이 지사가 군공항이 전남 어느 지역으로 이전을 해야 한다는 확실한 입장을 밝힌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며 "군공항의 전남 이전 입장을 즉각 철회하고 군공항 이전은 전남도민의 동의없이 추진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명확히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광주시는 지난해 10월 광주 군공항 이전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이에 따라 국방부는 오는 2017년까지 이전 후보지를 선정한다. 2022년까지 군공항을 이전할 계획이다. /윤현석기자chadol@



설 열차표 예매...마음은 벌써 고향에

설 연휴(2월 18~22일)를 앞두고 호남선 열차승차권 예매가 시작된 14일 광주시 북구 중흥동 코레일 광주분부에서 시민들이 열차표를 예매하기 위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전남시장·군수 협의회

공무원 인사교류 합의

전남 시·군간 간부급 공무원의 인사교류가 이뤄질 전망이다.

전남 시장·군수협의회는 시군 간 5·6급 공무원의 인사 교류에 원칙적으로 합의하고 방범용 폐쇄회로(CCTV) 설치 예산 전액 국비 지원 등을 건의하기로 했다. 시장·군수협의회는 14일 곡성에서 민선6기 제3차 회의를 열고 협의 안건 4건과 건의 안건 10건을 처리했다. 협의회는 복지비 부담률 등 중앙정부 지원 확대, 방범용 폐쇄회로(CCTV) 설치 예산 전액 국비 지원,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처우 개선 등 모두 10건을 건의하기로 합의했다. 또 시군간 5·6급 공무원에 대한 인사교류 활성화 방안 마련, 무기계약직 대외 호칭 협의, 정례회 때 도지사 참석, 차기 정례회 개최지 선정 등 4건을 협의했다.

조충훈 전남시장·군수협의회 회장은 "풀뿌리 민주주의를 제대로 구현하기 위해 지방자치 위기 대응책을 마련하고 시민과 군민이 지자체를 믿고 행복할 방안을 공동으로 마련해 나가자"고 말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정부 부패척결추진단

5개월간 1643건 적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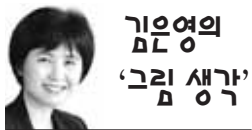
정부가 지난해 8월부터 추진한 '부정부패 척결 추진계획'에 따라 1643건의 비리를 적발했다.

국무총리 산하 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지난 5개월간 검찰·경찰 및 관계부처와 함께 부패척결에 나선 결과, 안전위해 비리 583건, 폐쇄적 직역 비리 200건, 재정손실 비리 456건, 반복적 민생 비리 193건, 공정성 훼손 비리 211건 등 총 1643건의 비리사태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임원, 업체 관계자 등은 모두 646명으로, 이 중 412명이 구속됐다. 지난해 국고보조금·지원금의 부정수급 및 유용액 총 3777억원도 적발해 관계기관이 환수하도록 조치했다.

정부는 지난해 8월 6일 국무총리 주재로 부패척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추진단을 중심으로 검·경, 관계부처가 협업해 5개 핵심분야 20개 유형의 부패척결을 추진하는 내용의 '부정부패 척결 추진계획'을 확정했다. /연남뉴스

'예술의 힘'...감정 씻어주고 정서 순화



(99) 카타르시스

얼마 전 지인이 출연하는 주부합창단과 아마추어 오케스트라 연주회에서 특출한 기교는 아니지만 혼신을 다하면서 행복해하는 연주자들의 모습에 감동이 밀려왔던 기억이 있다. 나이 들어가면서 눈물이 많아진다는 역감수성 탓인지, 아니면 선율마다 나의 인생도 함께 실려서인지 한순간 눈물이 났고 그러고 나니 마음이 한결 정화되는 듯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일찍이 "비극은 연민과 공포의 감정을 불러일으킴으로써 정서의 카타르시스(katharsis)를 가져 온다"는 언급으로 '예술정서론'에 주목했다. 비단 비극이 아니라라도 예술이 갖고 있는 정서적 성격은 인간을 짓누르는 불순한 감정을 맑고하게 씻어주고, 마음의 정화를 통한 순수한 쾌감에 의해 인간은 이성적이 된다는 것이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예술작품 감상을 하면서 카타르시스를 느낀 경험은 누구에게나 있을 것이다. 그것이 결국 예술이 주는 힘이라 생각해본다.

음악에서 얻는 위안은 그림 속에서도 찾을 수 있다. 미술사에서 최초로 완전 추상을 이룩한 화가로 평가받고 있는 칸딘스키(1866~1944)는 음악에서 비롯된 정각적 체험에 대한 인상을 표현한 작품을 다수 남겼다. 작품 '인상 3-콘서트'(1911년 작)는 아르놀트 쇤베르크의



칸딘스키 작 '인상'

콘서트에 다녀와서 콘서트홀의 분위기와 음악에 대한 상정을 형태와 색으로 나타내면서 정각적 인상과 시각적 인상을 동시에 묘사한 것이다. 검은 색 면은 무대 위에 있는 그랜드 피아노이며 왼편 여러 개의 작고 검은 곡선들은 무대 가까이에서 음악을 듣는 청중들이다. 노란색으로 상징되는 쇤베르크의 소리가 활을 가득 채우고 있어 인상적이다.

칸딘스키는 "미술이 자연의 모방이 아니라 색채와 선을 이용한 감정의 표현이라면 아예 자연을 몰아내고 색채와 선의 효과만을 따름으로써 더욱 순수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인식에서 비재현적인 방법, 즉 추상이라는 새로운 회화적 제안을 하였던 것이다. 실제 대상을 지니지는 않았지만 미술과 색채로 표현된 음악은 우리에게 또 다른 영감의 세계로 이끌어주는 것 같다. <광주비엔날레 전시부장·미술사 박사>

아름다운 기업-금호아시아나

당신이 있어 새해가 더 아름답습니다

"고3 일년, 후회 없이 보낼 거예요"

"땀 흘린 만큼 더 큰 수확이 따라오는 법이죠"

"가게 열심히 해서 막내 시집 보내야죠"

"더 안전하게 모시겠습니다"

열정과 집념을 가지고
각자 자기분야에서 자기역할을 다하는 사람
당신이 있어 올 한 해도 더 아름다울 것입니다

아름다운 사람들 - 아시아나항공

아시아나항공
A STAR ALLIANCE MEMBER